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브라민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

밥다다는 오늘 바바에 대해 순수한 사랑으로 그와 만나려는 순수한 소망을 지닌 고귀한 영혼들 모두를 보고 있다. 지금 이것은 밥다다가 그와 만나고자 하는 자녀들의 순수한 소망에 대한 실질적인 결실을 줘야 하는 유일한 때다. 순수한 신봉의 결실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인식이 있고 나면, 다시 말해 지식을 바탕으로 일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그들의 권리를 토대로, 아버지는 지식의 화신인 자녀들의 좋은 염원과 그들의 순수한 느낌, 그리고 만남을 갖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에 대한 결실을 그들에게 직접 줘야 한다. 오늘 밥다다는 아버지와 만나려는 소망을 가진 너희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지식으로 충만한 너희 자녀들 가운데로 왔다. 많은 브라민 영혼들은 힘의 화신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승리하며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러운 군인(마하비르)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 자신이 약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함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영혼들의 명단에 들어간다. 그 특별함이 무엇이나? 그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이 고결한 삶도 역시 좋아한다는 점이다. 브라민 가족의 집회의 이기심 없는 사랑이 마음을 끌어당긴다. 특별함은 그들이 바바와 가족을 찾았고, 순수성이라는 목적지, 또 그들의 삶을 고결하게 만드는 쉬운 지원을 찾았다는 점이다. 이 토대 위에 그들은 만남을 가지려는 순수한 소망과 더불어 사랑의 지원으로 계속 전진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관계를 형성했으므로 그 관계를 토대로 천국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유산으로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브라민들이 신인이 되는 것이 신인 신분에 대한 권리를 틀림없이 차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황금시대는 신인들의 시대라고 불린다. 어떤 이가 왕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종교는 어쨌든 신인종교인데,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아버지가 너희를 그의 자녀로 만들면 그의 자녀 모두가 천국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즉 모든 자녀가 신인이 될 권리를 타고나기 때문이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특별한 불멸의 도장을 받는다는 뜻이다. 온 세상 전체의 모든 이들 중에서 그런 권리를 차지하는 영혼들은 단지 소수만 나온다. 이러한즉 너희는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되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되는 것 자체가 특별함이고, 이 특별함으로 인해 너희는 특별한 영혼들의 명단에 오른다. 이런 이유로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된다는 것은 브라민 가문에, 브라민 세상에, 브라민 가족에 속한다는 의미다. 만일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된 후에 평범한 활동이나 과거의 활동을 한다면 그럴 경우는 너희 자신에게만 손실을 끼치는 것이 아는데, 너희는 고립된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가 아니고 너희 모두 브라민 가족의 구성원들이므로 너희는 브라민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짐도 역시 축적할 것이다. 브라민 세계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브라민의 의무다. 너희는 세상의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데 참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때로는 세상의 행동수칙이 너희가 억만장자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너희는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것을 정말로 원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도 역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은 이 말을 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는 세상이 너희에게서 여러 생 동안의 성취를 앗아가고 현재의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무가치한 빈 조개껍데기로 만드는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그러한 세상의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책임에 참으로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며 너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그렇다면 브라민의 이 행동수칙은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느라 너희들의 종교를 놓아버린다, 즉 너희가 혼숙한 것들과 기억이라는 고결한 활동을 놓아버리고, 다르마와 카르마 둘 다 놓친다. 때때로 너희는 순수한 시선을 가지는 너희의 종교를 놓친다. 때로는 순수한 음식을 먹는 종교를 놓아버린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며댄다. 그럴 때 너희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약간의 나약함이 너희로 하여금 다르마와 카르마를 영원히 버리게 만든다. 육신의 가정에서도 자기의 다르마와 카르마를 버리는 이는 어떻게 간주되느냐? 너희는 아느냐? 이것은 평범한 가정의 다르마와 카르마가 아니다. 이것은 상투인 브라민 가족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느 세상 어느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느냐? 너희는 심지어 고백도 아주 잘 해서, 저는 그 일을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 한다. 지식이 없는 영혼들이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기분 상하는 영혼들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고귀한 다르마와 카르마를 버린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브라민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몇몇 영혼을 기쁘게 하지만, 그러면서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의 지시에 불복했다! 이처럼 너희는 뭘 얻고 뭘 잃었느냐? 이미 끝난 세상이다! 장례식 때 화장에 쓰일 땀감은 대단한 기세로 모든 곳에서 걷어들였다. 땀감이란 준비라는 뜻이다. 너희가 그 장작개비들을 꺼내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장작더미는 더 높이 쌓일 것이다. 홀리카 때 불을 피울 때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어른들과 같이 땀감을 모으러 간다. 그들은 흥미가 대단해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땀감을 가져가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주 작은 마을에서도 엄청난 관심으로 서로 협조한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의 행동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너희는 신인이 될 브라민들의 불멸하는 세상의 행동수칙을 잊는다. 너희는 그렇게 대단한 놀라움을 연출한다! 이것이 너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그것을 잃는 것이냐? 따라서 너희의 의식 속에 브라민 세상의 행동수칙을 항상 간직해라.

자녀들 중 일부는 매우 영리해서, 낯은 세상의 행동수칙도 지키고, 또 브라민 세계에서 고귀해지는 것도 역시 원한다. 밥다다가 이르는데, 너희는 세속 가정의 행동수칙에 대한 책임을 준수해도 된다, 그것을 못 하게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희의 다르마와 카르마를 놓아버림으로써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는 무슨 총명함을 드러내느냐? 너희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직접 그는 자니자닌하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도구 영혼들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여전히 마두반에 온다! 너희는 봉사센터에 너희 자신을 숨기고 또 봉사에서 유명해진다. 너희는 약간 협조하고 그 협력을 토대로 봉사자가 되었다는 아주 좋은 칭호까지 얻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매 생마다 고귀한 칭호를, 즉, 모든 미덕으로 가득하며 천상의 16도로 완전하고, 완전히 악덕이 없다는 불멸하는 칭호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기만의 집을 짊어지는 것이다. 협조하는 영혼이 아니라 너희는 집을 진 자가 된다. 그런 영리함으로 너희 자신을 아무리 많이 전진하게 (찰라나) 한들 그것은 너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게 (칠라나) 만드는 일이다. 이 센터는 도구영혼들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영혼들을 속일지는 몰라도 신 앞에서는 모든 영혼의 거래내역에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틀림없이 수십만 곱절로 축적된다. 이 내역에서는 너희 자신을 속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그렇게 영리한 자녀들에게 자비를 느낀다. 그렇긴 하되 일단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했으니 그는 끊임없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영리해지지 마라. 한결같이 브라민 세계의 행동수칙을 지켜라.

밥다다는 모든 행위와 그 결실을 초월해있다. 지금 이때에는 심지어 브라마 바바도 역시 그 단계에 있다. 나중에는 카르마의 계산내역을 가지겠지만 지금 이때에 그는 아버지와 대등하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 각자가 뭘 하든 너희는 제 스스로를 위해 그 일을 한다. 아버지는 공여자다. 너희는 모든 일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 결실을 받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뭘 해야겠느냐? 서틀 리전에서 자녀들의 다양한 게임들을 보면 밥다다는 미소를 짓는다. 앗차.

브라민 가문의 등불인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협조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고귀한 결실을 성취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아버지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일시적인 모든 성취를 희생하는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하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그룹들을 만나심.

카르마 요기가 되어 카르마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단계를 경험해라.

모든 행위를 행하는 동안 너희는 카르마의 굴레를 초월해 있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하되 초연한 영혼들로 너희 자신을 경험하느냐? 카르마 요기로서 모든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카르마에 의한 속박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한결같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요가에 정확하게 연결된 상태에 머문다. 카르마 요기는 결코 어느 누구의 좋거나 나쁜 행위에 영향 받지 않는다. 선한 행위를 행하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는 너희가 행복해지고, 좋은 행위를 행하지 않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는 화가 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을 싫어하지는 않게 해라. 그것도 역시 카르마의 속박이다. 카르마 요기 앞에 오는 다른 영혼들이야 어쨌든, 그런 영혼은 항상 사랑하면서 초연할 것이다. 너희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역시 카르마의 굴레다. 그런 굴레를 가진 자들은 항상 똑같은 상태로 머물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한 가지를, 다른 때는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초연한 관찰자가 되어 선량한 자들을 선량하다 여기며 보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나쁜 자들을 볼 때는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자비심과 좋은 염원을 가지고 초연한 관찰자로서 보라. 이것은 카르마의 굴레를 초월해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식이란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해냐? 카르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대한 이해가 곧 지식이다. 지식이 많은 영혼은 결코 굴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초연할 것이다. 너희가 때로는 초연하고 다른 때는 남들에게 약간 영향 받게 되지는 마라. 죄 되는 행위들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한결같이 간직해라. 너희는 카르마의 굴레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훈련을 함으로써 너희는 오랫동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 지금 매우 독특한 경험들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초연하고 끊임없이 사랑해라. 이것이 아버지와 대등하게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단계다.

밥다다가 시니어 자매들에게 말씀하심.

너희들은 이 그룹을 어떤 그룹이라고 부르겠느냐? 초창기에는 너희 모두 너희들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지금 너희에게는 어떤 이름을 줘야겠느냐? 아버지와 한결같이 동반하며 끊임없이 아버지의 오른손인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그룹이 아니냐? 밥다다가 팔 없이 수립의 그 거대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수립의 과업을 위한 특별한 팔들이다. 오른손은 특별한 팔이다. 밥다다는 원래의 보석들을 언제나 순금이라고 부른다. 본래의 보석인 너희들 모두 세계무대에서 특별한 배역들을 연기하고 있다. 밥다다는 특별한 영혼들 모두의 특별한 역할을 보며 기쁘다. 모든 이에게 다양한 역할이 있으며 모두가 다 똑같은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한데, 즉 원래의 보석들은 드라마에 따라 특별한 배역을 맡는다. 보석인 너희들에게는 각자의 특정한 특기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너희는 전진하고 있으며 항상 그러할 것이다. 남들 뿐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도 그 특기가 뭔지 안다. 그렇지만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 모두 특별함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수립이라는 과업을 물리적인 형태로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 참으로 많이

참고 견뎌야 했기에 밥다다는 그러한 원래의 보석들을 십만 곱절로 축하한다. 남들은 너희가 수립의 과업에서 견뎌야 했던 것만큼 관용하지 않았다. 관용하는 너희들의 힘이라는 씨에서 이 열매가 열렸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들 각자가 처음부터 종간을 거쳐 끝까지 무엇을 얼마나 참고 견뎌야 했으며 너희가 삭티의 형태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게임으로 관용해왔다. 뭔가를 참고 견디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용하지 않고 너희는 모든 것을 게임으로 관용하며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는 도구가 됨으로써 너희들 자신을 위해 주인공의 배역을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도구가 된 본래의 보석들의 배역은 항상 밥다다 앞에 있다. 이 결과, 너희 영혼들 모두 변함없이 불멸한다. 너희의 역할을 이해하느냐? 누가 아무리 멀리 앞서가더라도 그럴 때, “그렇다 해도...”라고 말해야 한다. 밥다다는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안다. 이해하느냐? 앗차.

질문 : 합류시대의 브라민 자녀들은 어떤 과제에 변함없이 참여해서 늘 바쁘게 지내야 하느냐?

대답 : 너희는 강력해져야 하고 남들도 역시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니, 이 과제에 한결같이 참여해서 바쁘게 지내라. 지금 때는 강력해질 것이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낭비적인 생각, 낭비적인 말, 낭비적인 행위를 완전히 끝내고 마침표를 찍어라! 낡은 장부책은 닫혔다. 축적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강력한 상태로 머무는 것인데, 왜냐하면 낭비로 인해 시간, 에너지,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Blessing: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도 가슴의 옥좌에 항상 앉아있는 태평한 황제가 되어라.

밥다다 가슴의 옥좌에 변함없이 앉아 있는 자들은 태평한 황제가 된다. 이 옥좌의 특별함은 거기에 앉아 있는 이들은 항상 모든 측면에서 태평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어떤 장소에는 특별한 새로움이나 뭔가 특성이 있다. 가슴의 옥좌에 앉혀지는 특별함은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슴의 옥좌에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 따라서 무슨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든 언제나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어라.

Slogan: 앞선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협력은 물론이고, 힘의 형태도 역시 채택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